

울산지역 민주노총 후보 당선 "진보대단결로 새로운 희망을"

8 편집국 | © 승인 2016.04.14 15:59



▲ 울산 동구의 무소속 김종훈 당선인(왼쪽 두번째)과 울산 북구의 무소속 윤종오 당선인(왼쪽 세번째) 등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총선 승리 만세를 외치고 있다. © 민주노총 울산본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노총 후보 울산 북구 무소속 윤종오 후보와 울산 동구 무소속 김종훈 후보가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됐다.

14일 오전 울산광역시의회 기자실에서 열린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4.13 총선 결과보고 기자회견'에서 당선인들을 비롯한 권오길 민주노총 울산본부장, 낙선한 이향희 노동당 후보 등이 "울산 노동자와 시민의 승리"라며 "진보대단결로 새로운 희망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들은 "제20대 총선 울산 북구와 동구선거에서 후보 단일화를 이뤄낸 노동자들이 친재벌, 반노동 정책을 밀어붙인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을 심판했다"며 "울산이 노동정치 1번지로 다시 우뚝 설 것"이라고 말했다.

또 "쉬운해고와 노동개약을 막아내 일자리를 지켜내고 재벌 개혁은 물론 후퇴한 민주주의를 복원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되찾는 등 노동진보세력이 하나되는 토대를 새롭게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이 자리 잡은 울산 동구는 무소속 김종훈 후보가 58.88%의 높은 득표율로 32.75%를 얻는데 그친 새누리당 안효대 후보에 26.13% 차로 압승했다. 또한 북구에서도 윤종오 후보가 61.5%의 높은 득표율로, 38.5%에 그친 새누리당 윤두환 후보를 크게 앞섰다. 새누리당은 두 당선인이 통합진보당 출신이라는 점을 물고 늘어지며 집요하게 '중복 공세'를 펼치며 비난했으나 역부족이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박근혜의 총선 목표 중 하나였던 노동개약 강행에 대해 노동자가 올린 조종이며, 역사교과서 국정화 및 세월호 진상규명 외면 등 현 정부의 오만과 독선에 민중이 내린 심판"이라며 "이번 총선 결과를 바탕으로, 노동자-서민을 위한 △노동개약 저지 △최저임금 1만원 쟁취 △재벌책임 강화를 위한 활동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편집국 kctu2670@nodong.org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